

#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으로 본 조선시대 각수 활동 연구\*

A Study of Engraver's Activity of Chosun Period Recorded in the Confucian Printing Woodblocks Kept in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우진웅 (Woo, Jin-Woong)\*\*

## ◁ 목 차 ▷

- |                      |                           |
|----------------------|---------------------------|
| 1. 서 언               | 4. 책판 표기를 근거로 한 각수의 판각 활동 |
| 2. 책판에서의 각수 표기       | 5. 결 언                    |
| 3. 각수의 참여 인원과 판각상 특징 | <참고문헌>                    |

## < 초 록 >

본 연구는 책판에 보이는 각수 기록에 의거하여 조선시대 문집 등 민간출판물을 판각한 각수의 정보와 활동, 책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판각 과정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은 2015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일반인은 물론 학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책판에는 문헌에서는 볼 수 없고 오직 책판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 있다. 각수에 대한 정보도 그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각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불교문헌을 새긴 사찰 각수를 대상으로 한 주제가 많았다. 불교문헌의 경우 책판이 전해지지 않더라도 많은 문헌에 각수 기록이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집 등의 민간출판물은 문헌을 통해 각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남아 있는 책판의 표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책판에 보이는 각수 기록에 의거하여 문집이나 족보 등 민간출판물을 판각한 각수의 정보와 판각 활동 및 판각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要語: 각수, 사찰 각수, 유교책판, 판각, 문집간행, 한국국학진흥원, 세계기록유산

## < ABSTRACT >

This study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engraving, engraver's information and their activity which can be checked through the text of anthology and document made in Chosun(朝鮮) Dynasty. Woodblocks in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韓國國學振興院) were listed in the Memory of the World in 2015, raising interest in the academic community as well as academic circles. The woodblocks contain a variety of information that can not be viewed in the literature and can only be viewed on the woodblock.

So far, there were many subjects devoted to Buddhist engravers inscribed with Buddhist scriptures. In Buddhist literature, there is a written record of engravers in many literature, even though the woodblocks are not handed down. However, private publishing materials such as literature or anthology can not be checked through the literature, and can be checked through the record of woodblocks.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details of each edition of the text, the angle of engraving, and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the woodblocks.

Key words: Engraver, Engraver of temple, Confucian woodblocks, Engraving, Engraving of Anthology, 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Memory of the World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8018153).

\*\* 한국국학진흥원 전임연구원(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7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7년 12월 8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4일  
서지학연구, 제72집, 335-362, 2017. [https://doi.org/10.17258/jib.2017..72.335]

## 1. 서 언

목판인쇄는 근대까지 가장 보편적이며 탈시대적인 인쇄 방법이었다. 신라의 『무구정광대다라니경』, 고려대장경, 조선의 각종 문집이나 족보 등 많은 문헌들이 계속해서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간행 주체 또한 중앙과 지방정부, 사찰, 서원, 문중이나 개인 등 모든 곳이 해당되었다. 그러나 목판으로 간행된 많은 문헌들은 전해지지만 책판은 소실되었거나 관리상의 문제로 모두 남아 있지 않다.

최근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sup>1)</sup>되어 책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록물로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책판은 무한의 의미와 가치가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중에서 책판에 문자를 새기는 일을 하는 각수는 여러 면에서 흥미로운 주제이다. 지금까지 각수에 관한 연구는 주로 불교 문헌을 새긴 사찰 각수나 『國朝寶鑑』 등 단일 문헌의 각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sup>2)</sup>가 있었으며, 특정 사찰의 각수에 대하여 판각 양식을 미술사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특정 주제의 판본 연구나 특정 사찰 간행 판본에 대한 서지학적 연구에서 각수를 다루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간행된 민간출판물, 즉 문집이나 족보 등의 책판을 새긴 각수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헌들은 일부 판본을 제외하면 각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책판에서만 보이는 다양한 기록 중에서 각수의 기록에 의거하여<sup>4)</sup> 조선시대 문집이나 족보 등 민간출판물을 판각한 각수의 정보와 활동, 책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판각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책판에서의 각수 표기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거치며 수많은 인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다. 책의 규모가 방대할수록 참여 인원은 많아진다. 그 중에서 특히 목판에 문자를 새기는 일을 하는 각수는 책의 간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 중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이들은 刻字匠, 刻匠, 刻工, 刻員, 刊員, 刊工 등으로 불리어지나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刻手’이다. 목판은 넓은 의미로 나무로 된 모든 판자 형태를 의미한다. 목판은 사용 목적에 따라 책을 찍기 위한 冊板, 시나 편지 종이를 만들기 위한 詩箋紙板, 책의 표지를 꾸미는 菱花板, 누정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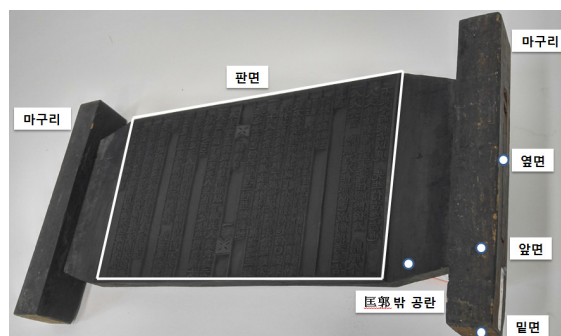
1) 2015년 ‘한국의 유교책판’이라는 명칭으로 718종 64,226장이 등재됨.  
2) 김상호, “『國朝寶鑑』 1782년 판본의 刻手 연구,” 『서지학연구』 제44집(2009. 12), 193-209.  
김상호, “『國朝寶鑑』 1848년 판본의 刻手 연구,” 『서지학연구』 제45집(2010), 97-117.  
김상호, “조선조 사찰판 각수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0집(1991), 331-403.  
3) 박도화, “雲興寺 刻手 演熙의 板刻 양식,” 『강좌미술사』 제26집(2006), 637-664.  
4) 남권희 저·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기획,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각수 인명록』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종택, 서원 등에 걸려있는 懸板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남아있는 대다수의 목판이 책판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책판을 목판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책판은 책을 찍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지만 책판의 실물에는 그 책판으로 찍은 책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중요한 기록이 있다.

한권의 책을 제작하는데 어떤 각수가 책판을 판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대부분의 불교 문헌의 경우 보통 책의 맨 끝에 간기와 함께 각수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거나 본문의 관심 부분이나 변란 밖에 표기되어 있어 남아있는 문헌만으로도 누가 각수로 참여하였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문헌 외에 특히 민간 주도하에 간행된 문집이나 족보 등을 새긴 각수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인출된 문헌에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책판의 실물에는 전체는 아니지만 마구리나 판면 밖에 성명이나 범명 등 각수 기록이 표기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각수에 대한 기록은 모든 책판에 표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훼손으로 인해 지워졌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표기하지 않은 것, 판독이 어려운 것도 있으므로 그 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유교책판 중 각수명이 한 명 이상 표기되어 있는 것은 195종 14,000여 판이다.<sup>5)</sup> 대략적으로 전체 책판 중 약 20-25% 정도에 각수명이 표기되어 있다.

## 2.1 각수명의 표기 위치

각수명의 표기는 대부분 마구리 부분에 위치한다. 마구리 부분에는 □□集, 卷六, 三四丈과 같이 책판명-권차-장차를 표기하며, 그 아래 공란에 각수명을 墨書로 표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대부분 마구리의 앞면과 뒷면, 옆면 중에 표기되어 있으며, 그 중 마구리 옆면에 가장 많이 표기되어 있다. 옆면에 표기하면 책판이 板架에 배열되었을 때 책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드물게 마구리의 밑면, 판면의 匡郭 밖 공란, 책판의 한판 중 한 면만 새기고 뒷면의 空板에 각수명을 표기하기도 한다.



<그림 1> 책판의 명칭 / 각수명 표기 위치

5) 남권희 저·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기획(2015), 3.

## 2.2 각수명의 표기 방법

책판에서의 각수명은 상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 마구리에 나타나며 일부 판면 밖 공란에도 나타난다. 표기의 방법으로는 붓을 이용해 묵서로 쓴 것, 조각도를 이용해 陰刻으로 파낸 것으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책판은 책판명, 권차, 장차와 함께 붓을 이용한 묵서로 각수명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易學圖說』(1645), 『農巖集』(1710), 『谷雲集』(1711), 『安東權氏世譜』(1794) 등과 같이 각수명을 음각으로 표기한 것도 보이는데, 주로 17-18세기에 간행된 문헌의 책판에서 나타났다.



<그림 2> 책판에서의 각수 표기 예

## 3. 각수의 참여 인원과 판각상 특징

본 장에서는 각수의 참여 인원과 각수 1인당 판각 분량 및 판각상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은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중 거의 완판<sup>6)</sup>의 형태로 남아 있으며, 대부분의 책판에

6) 결락된 책판 없이 전체 판을 완전히 갖춘 상태.

각수명이 표기되어 있는 책판 29종을 추출하였으며, 책판에 각수명 표기는 없으나 문헌 기록이 있는 1종으로 하였다.

<표 1> 추출 책판

(가나다순)

책판명	간행시기	권/책	저자	완판/현존/ 각수 표기판	각수 수 <sup>7)</sup>	1인당 최소최대 판각량
家禮輯要	1752	7/3	鄭重器(1685-1757)	79/79/75	[20]	1-8 <sup>8)</sup>
家禮或問	18c	10/5	鄭碩達(1660-1720)	181/181/179	[20]	1-26.5
良齋續集	1829	5/3	李德弘(1541-1596)	96/96/96	13	1-13
琴易堂集	1855	7/4	裴龍吉(1556-1609)	145/144/142	[41]	1-8.5
懶拙齋集	1833	4/2	李山斗(1680-1722)	60/60/51	[11]	0.5-18
桃村實記	1831	2/1	李秀亨(1435-1528)	26/25/25	[9]	1.5-6.5
梅軒集	1823	2/1	洪俊亨(1606-1666)	35/33/29	[29]	1
勿巖集	1775	4/2	金隆(1525-1594)	67/61/57	[15]	2-7
密菴集	19초	48/24	李栽(1657-1730)	533/511/461	[90]	0.5-11
百弗菴集	1835	18/7	崔興源(1705-1786)	152/152/151	[23]	1-13
白雲齋實記	1786	4/2	權應銖(1546-1608)	77/77/64	[26]	0.5-5.5
北亭集	1847	5/2	李宗周(1753-1818)	86/82/82	[19]	0.5-9
石門集	1821	4/3	鄭榮邦(1577-1650)	114/114/103	[14]	3-12.5
松月齋集	19초	6/3	李時善(1625-1715)	132/131/130	[17]	1-13
水北遺稿	1805	4/2	金光炫(1584-1647)	82/77/69	[29]	1-5
約齋集	1811	8/4	權柄(1723-1772)	187/187/180	[34]	1-11
陽坡集	1807	4/2	柳觀炫(1692-1764)	78/78/75	[32]	1-6
龍巖集	1778	4/2	朴雲(1493-1562)	68/68/63	[11]	1-11
二愚堂集	1816	4/2	權奭(1580-1652)	58/58/58	12	2-10
立齋集	1835	48/24	鄭宗魯(1738-1816)	860/705/695	[66]	1-24
定齋集	1883	36/19	柳致明(1777-1861)	755/684/656	[45]	1-50
芝村集	1865	4/2	金邦杰(1623-1695)	90/90/87	[14]	1-14
懲愆錄	19초	16/6	柳成龍(1542-1607)	246/244/203	[38]	1-12
清臺集	1797	18/9	權相一(1679-1759)	348/347/256	[72]	1-11
鶴林集	19초	11/6	權訪(1740-1808)	289/278/275	[43]	0.5-18
鶴湖集	1813	4/2	金奉祖(1572-1630)	77/77/77	21	1-8
涵溪集	1773	6/3	鄭錫達(1660-1720)	118/118/108	[33]	1-7
湖陽集	19초	4/2	權益昌(1562-1645)	55/54/54	[14]	1-7
洪範衍義	1668	28/13	李玄逸(1627-1704)	495/476/474	[58]	1-18
晦堂集	1932	43/21	張錫英(1851-1929)	770	33	2-72

7) [ ]: 책판 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각수 참여 인원

8) 책판 수량 표기에 있어 '1판'은 목판의 전후면 전체를 의미함.

### 3.1 각수 참여 인원과 판각 분량

#### 3.1.1 2-5권 분량

2권 1책<sup>9)</sup>의 『桃村實記』(1831)는 26판 판각에 약 9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5판(2명), 최대 6.5판(1명)을 판각하였다.

4권 2책의 『勿巖集』(1775)은 67판 판각에 약 15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2판(3명), 최대 7판(1명)을 판각하였으며, 『龍巖集』(1778)은 68판 판각에 약 11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1명), 최대 11판(1명)을 판각하였다. 『二愚堂集』(1816)은 58판 판각에 12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2판(2명), 최대 10판(1명)을 판각하였고, 『芝村集』(1865)은 90판 판각에 약 14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2명), 최대 14판(1명)을 판각하였다. 『鶴湖集』(1813)은 77판 판각에 21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3명)에서 최대 8판(2명)까지 판각하였으며, 『湖陽集』(19세기초)은 55판 판각에 약 14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3명), 최대 7판(1명)까지 판각하였다. 『懶拙齋集』(1833)은 60판 판각에 약 11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0.5판(1명), 최대 18판(1명)을 판각하였다. '崔敬仁'은 전체 판각량의 30% 가량인 18판을 혼자 담당하였다.

『石門集』(1821)은 114판 판각에 약 14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3판(1명), 최대 12.5판(1명)을 판각하였다.

5권 2책의 『北亭集』(1847)은 86판 판각에 약 19명의 각수가 1인당 최소 0.5판(1명), 최대 9판(1명)을 판각하였다. 5권 3책의 『良齋續集』(1829)은 96판 판각에 13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최소 1판(1명), 최대 13판(1명)을 판각하였다.

위와 같이 적은 분량의 인출본이라 할지라도 판각에 참여한 각수의 인원은 문집별로 차이가 있으며, 한 종의 책판에 각수 1인당 많은 분량을 판각한 각수와 적은 분량을 판각한 각수의 편차도 많았다. 그러나 『水北遺稿』, 『陽坡集』, 『白雲齋實記』 등은 각수별로 분담한 판각량이 비교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권 2책의 『水北遺稿』(1805)는 82판 판각에 약 29명이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7명), 최대 5판(1명)을 판각하였다. 각수 대부분인 25명이 각각 1-3판만을 분담하여 판각하였다. 『陽坡集』(1807)은 78판 판각에 약 32명의 각수가 최소 1판(9명), 최대 6판(1명)을 판각하였다. 각수 모두 6판 미만을 담당하였으며, 1-2판만의 적은 양을 새긴 각수가 22명으로 많았다. 『白雲齋實記』(1786)는 77판 판각에 약 26명의 각수가 최소 0.5판(1명), 최대 5.5판(1명)을 판각하였다.

2권 1책의 『梅軒集』(1823)은 35판 중 33판이 남아있으며 그 중 29판에 각수가 확인된다. 특이한 점은 29판에 각각 다른 각수명이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달리 말해 각수 한명이 한판씩만

9) 해당 책판으로 찍은 인출본의 권책수를 기준으로 함.

판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출본의 장차를 확인해보면 『梅軒集』은 총 35권으로 되어 있다. 29권 외에 각수가 표기되지 않은 6판도 모두 한명의 각수가 한판씩 새겼다고 보면, 총 35명의 각수가 참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책판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판각 분담에 비해 매우 특이한 사례이다. 이렇듯 적은 분량의 문집이라도 『梅軒集』(약 35명), 『水北遺稿』(약 29명), 『陽坡集』(약 32명)은 비교적 많은 각수가 참여하였으며, 『龍巖集』(약 11명), 『二愚堂集』(약 12명), 『懶拙齋集』(약 11명)은 적은 각수가 참여하였다. 비슷한 분량의 책판도 참여한 각수 수의 차이가 있으며, 같은 책판이라도 각수별 판각량의 차이가 있었다. 간행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많은 각수를 동원하였으며, 숙련된 각수에게는 많은 일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2-5권 분량 책판의 각수별 판각량

(가나다순)

책판명	판각량(각수명)
良齋續集 (1829)	1관 1명(陳得用), 3관 1명(田萬歲[田萬世]), 4관 2명(金應仁, 成千大), 7관 3명(鄭德仁[鄭德麟], 陳得孫, 僧 登輝), 8관 1명(崔儀葉), 9관 1명(僧 世允), 10관 1명(許孫伊), 11관 1명(崔敬仁), 12관 1명(金守業), 13관 1명(姜應伯)
懶拙齋集 (1833)	0.5관 1명(田尙存), 1관 4명(僧 等輝, 李弼尙, 金昌孫, 成千大), 2관 1명(權龍), 3관 1명(權之度), 5관 1명(金啓順), 7관 1명(秦得龍), 11관 1명(田萬世), 18관 1명(崔敬仁)
桃村實記 (1831)	1.5관 2명(崔儀葉, 金千大), 2관 4명(許孫伊, 陳得孫, 姜應伯, 張日才), 3관 2명(金守業, 僧 慧允), 6.5관 1명(權之度)
龍巖集 (1778)	1관 1명(得英), 3관 1명(俊和), 3.5관 1명(汝行), 4관 1명(克信), 5관 1명(萬石), 6관 2명(宅英, 羅在根), 6.5관 1명(李振揮), 7관 1명(先冊), 8.5관 1명(瑞樞), 11관 1명(得默)
梅軒集 (1823)	1관 29명(權晚福, 權宗胤, 金德孫, 金得壽, 金錫得, 金於慶, 金應天, 金宗玉, 金昌孫, 金千孫, 金初逢, 金泰仁, 金興孫, 裴喆臣, 徐忠福, 徐厚福, 成麟, 成天大, 孫俊得, 僧 明淑, 僧 世允, 僧 拙輝, 梁禹舟, 梁致星, 秦得用, 崔得云, 崔云白, 崔厚孫, 黃順玉)
勿巖集 (1775)	2관 3명(漢珠, 肯淑, 車德守), 3관 4명(處心, 采順, 雷壯, 汗珠), 4관 3명(貴萬, 大有, 緇仁), 5관 4명(桂活, 克輝, 國訓[國熏], 德修[德守]), 7관 1명(再樺)
白雲齋實記 (1786)	0.5관 1명(朴上顔), 1관 10명(有永, 頓慧, 玉峯, 朴聖澤, 碧耶, 仁俊, 徐光珠, 李科己, 聖澤, 聖化), 2관 4명(有鑑, 李聖化, 戒普, 最演), 2.5관 1명(定甘), 3관 3명(典如, 贊證, 印寬), 3.5관 2명(厚岩, 普惠), 4관 2명(金光珠, 有沾), 4.5관 2명(應悅, 恢善), 5.5관 1명(徐達守)
北亭集 (1847)	0.5관 1명(金岳), 1관 2명(李爛臣, 崔敬仁), 2관 2명(權鎔, 田基德), 2.5관 1명(金國元), 3관 3명(李爛臣, 桂春, 鄭英俊), 4관 1명(田聲大), 5관 2명(成日千, 劉大根), 6관 3명(秦弼道, 劉應守, 李億), 7관 1명(劉致中), 7.5관 1명(鄭忠元), 8관 1명(池魚國), 9관 1명(梁鳳來)
石門集 (1821)	3관 1명(致元), 4관 1명(國大), 5.5관 2명(崔敬道, 豐云), 6관 3명(聖允, 俊得, 石得), 6.5관 1명(金根玉), 7관 1명(厚卜), 8관 1명(太仁), 8.5관 1명(得龍), 9관 1명(權宗允), 10관 1명(黃順玉), 12.5관 1명(戒聖)
水北遺稿 (1805)	1관 7명(僧 快默, 金大元, 僧 幸察, 僧 太順, 曹昌龍, 全用大, 黃元才), 1.5관 2명(僧 僅朋, 僧 戒叔), 2관 6명(僧 敬洪, 金允澤, 李福起, 僧 思仁, 僧 秋安, 僧 處益), 3관 10명(僧 大海, 僧 任成, 僧 致俊, 僧 頓信, 僧 起官, 金用大, 金福守, 安汝成, 僧 儀朋, 韓啓千), 3.5관 1명(僧 有澄), 4관 1명(高宗龍), 4.5관 1명(僧 英俊), 5관 1명(崔先得)
陽坡集 (1807)	1관 9명(有英, 昌習, 應清, 得孫, 萬載, 致京, 龍孫, 卜萬, 傅福), 2관 13명(道允, 卜奇, 英俊, 宇混, 云得, 云卜, 時演, 啓元, 采京, 忠國, 再太, 取伯, 正直), 3관 5명(定林, 處益, 快默, 大海, 秋眼), 4관 1명(有淳), 5관 3명(允才, 先得, 太淳), 6관 1명(孟春)

책판명	판각량(각수명)
二愚堂集 (1816)	2권 2명(崔敬仁, 田晩世), 3권 2명(裒益尙, 權得云), 4권 2명(成千大, 鄭白樺), 5권 3명(金祐尙, 金昌孫, 田尙宗), 7권 1명(鄭基元), 8권 1명(沈得福), 10권 1명(僧 登輝)
芝村集 (1865)	1권 2명(田成大, 田勢大), 1.5권 1명(孫喆守), 2권 1명(徐日祥), 3권 1명(盧甲龍), 3.5권 1명(崔敬仁), 5권 3명(成鶴天, 張近德, 田萬瑞), 11권 2명(裒相振, 崔龍得), 11.5권 1명(金有明), 12권 1명(田益慶), 14권 1명(田善俊)
鶴湖集 (1813)	1권 3명(金太仁, 崔厚孫, 僧梵玉), 2권 3명(金德孫, 僧智圓, 僧元敏), 2.5권 1명(李季孫), 3권 4명(張一才, 崔敬仁, 金得壽, 崔達文), 4권 4명(崔取白, 金啓順, 鄭德仁, 陳得孫), 5권 3명(僧啓性, 僧幸俊, 黃順玉), 6권 1명(金應俊), 8권 2명(崔敬道, 僧聖允)
湖陽集 (19초)	1권 3명(權之道, 朴之度, 季孫), 2권 2명(世允, 崔隱葉), 3권 2명(田應存, 田萬世), 5권 4명(朴常春, 季成, 田尙存, 許孫), 6권 1명(姜應伯), 6.5권 1명(陳得孫), 7권 1명(季義)

### 3.1.2 6-10권 분량

6권 3책의 『松月齋集』(19세기 초)은 132권 판각에 약 17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권(2명)에서 최대 13권(1명)을 판각하였다. 『涵溪集』(1773)은 118권 판각에 약 33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권(7명), 최대 7권(1명)을 판각하였다. 7권 3책의 『家禮輯要』(1752)는 79권 판각에 약 20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권(2명), 최대 8권(1명)을 판각하였다. 7권 4책의 『琴易堂集』(1855)은 145권 판각에 약 41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권(8명), 최대 8.5권(1명)을 판각하였다.

8권 4책의 『約齋集』(1811)은 187권 판각에 약 34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최소 1권(1명), 최대 11권(1명)을 판각하였으며, 10권 5책의 『家禮或問』(18세기)은 181권 판각에 약 20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최소 1권(3명), 최대 26.5권(1명)을 판각하여 각수별 판각량의 편차가 크다.

<표 3> 6-10권 분량 책판의 각수별 판각량

(가나다순)

책판명	각수별 판각량(각수명)
家禮輯要 (1752)	1권 2명(李次福, 金大吉), 2권 3명(李聖必, 李雲必, 金景文), 2.5권 3명(安處益, 朴致五, 金文學), 3권 4명(金應宗, 金昌祿, 李之玉, 朴萬業), 4권 1명(裒長春), 4.5권 1명(張應祚), 5권 1명(裒德祚), 6권 3명(石致昊, 金英建, 裒景度), 7권 1명(朴大彬), 8권 1명(金宗玉)
家禮或問 (18c)	1권 2명(金正文, 鄭仁), 2권 3명(金景文, 李之玉, 田萬瑞), 4권 1명(朴致五), 5권 2명(朴萬業, 洪善宅), 6권 1명(崔龍得), 7권 1명(裒相鎮), 10권 2명(朴德運, 張應祚), 11권 1명(張根德), 11.5권 1명(黃完石), 12권 1명(田善俊), 14권 1명(金英建), 15권 1명(張啓春), 16권 1명(裒張春), 19권 1명(安處益), 26.5권 1명(金宗玉)
琴易堂集 (1855)	1권 8명(洪時宅, 權時卜, 黃完石, 黃尙祿, 李斗光, 洪善澤, 田萬瑞, 金正業), 1.5권 1명(李炯臣), 2권 3명(劉應守, 孫俊德, 權尙麟), 3권 9명(金興俊, 劉大根, 池達龍, 鄭基元, 劉致中, 金源德, 李億伊, 劉云得, 崔敬仁), 3.5권 1명(吳瑞龍), 4권 8명(徐日生, 崔龍得, 成鶴天, 裒尙徵, 張桂春, 金石九, 田性大, 洪啓允), 5권 7명(吳翰文, 梁鳳來, 孫喆壽[孫喆守], 李命喆, 金有明, 金國元, 金洛濬), 6.5권 1명(秦學元), 7권 2명(田善俊, 張謹德), 8.5권 1명(金遠大)

책판명	각수별 판각량(각수명)
松月齋集 (19초)	1관 2명(池魚國, 田相宗), 2관 1명(僧 應冊), 4관 1명(應筴), 5관 1명(鄭忠元), 7관 2명(僧 等輝, 成千大), 9관 4명(姜應百, 朴雲權, 劉致羽, 崔應燁), 10관 2명(朴尙春, 權之慶), 11관 1명(金昌孫), 12관 2명(田萬世, 鄭德麟), 13관 1명(裴益相)
約齋集 (1811)	1관 1명(成鱗), 2관 4명(金忠碩, 裴喆身[裴哲身], 金昌孫, 應天), 2.5관 1명(金學俊[學俊]), 3관 4명(權宗允, 金戒淳[金戒順], 金千孫, 僧 啓性), 4관 3명(孫石得[孫碩得], 權萬卜, 僧 登輝), 5관 4명(僧 將輝, 金聖佑, 徐忠碩[徐忠石], 崔後孫[厚孫]), 5.5관 1명(成天大[成千大]), 6관 6명(梁致星, 徐厚卜[厚卜], 崔宗得, 梁禹舟, 僧 世允, 金禹玉[金禹億, 金又玉]), 7관 3명(僧 明叔, 朴大成, 金德孫), 8관 4명(秦德龍, 孫俊得, 崔敬仁, 崔雲白), 9관 2명(崔敬道, 金德守), 11관 1명(黃順玉)
涵溪集 (1773)	1관 7명(永川 金光珠, 慈仁 璧旭, 大丘 朴性澤, 大丘 定鑑, 大丘 尹孫, 永川 戒春, 慶州 智永), 2관 3명(新寧 贊眞[贊澄], 永川 定甘, 策演), 3관 7명(大丘 如玉, 大丘 進淑[振淑], 青松 通暹, 新寧 徐達秀, 永川 尹萬大, 青松 方益, 慈仁 有鑑[幼鑑]), 4관 9명(新寧 愼-[愼日], 密陽 元允, 大丘 幻式, 永川 廣俊, 青松 廓存, 青松 幼完, 慈仁 恢紋[會文], 大丘 朴尙彥, 慈仁 太永), 5관 4명(大丘 永初, 新寧 徐永俊, 慈仁 最演, 新寧 李性化), 6관 2명(大丘 普慧, 大丘 有英), 7관 1명(安東 有淳)

### 3.1.3 11권 이상 분량

비교적 많은 분량일 경우 각수별 판각량의 편차가 많이 있는 편이었다. 11권 6책의 『鶴林集』(1811)은 289판 판각에 약 43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0.5판(2명), 최대 18판(1명)을 판각하였다. 16권 6책의 『懲毖錄』(19세기 초)은 246판 판각에 약 38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7명), 최대 12판(3명)을 판각하였다. 18권 7책의 『百弗菴集』(1835)은 152판 판각에 약 23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1명), 최대 13판(1명)을 판각하였다. 28권 13책의 『洪範衍義』(1668)는 495판 판각에 약 58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4명), 최대 18판(1명)을 판각하였다.

36권 19책의 『定齋集』(1883)은 755판 판각에 약 45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2명), 최대 50판(1명)을 판각하였다. 특히 『정재집』은 20.5판 1명(崔龍得), 21판 1명(劉致烈), 23판 2명(朴箕煥, 劉又先), 26판 1명(朴忠煥), 27판 1명(鄭大興), 28판 2명(田有敬, 裴顯銑), 38.5판 1명(田基元), 50판 1명(朴昌煥)과 같이 많은 양을 판각한 각수가 다른 문집과 비교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8권 24책의 『密菴集』(19세기 초)은 533판 판각에 약 90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0.5판(2명), 최대 11판(1명)을 판각하였다. 90명의 각수는 조사된 책판 가운데 한 문헌의 판각에 참여한 각수의 인원이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된다. 결락된 책판, 각수명의 확인이 어려운 책판이 70여판 이상이 되어 사실상 더 많은 각수가 참여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48권 24책의 『立齋集』(1835)은 860판 판각에 약 66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1명), 최대 24판(1명)을 판각하였다. 18권 9책의 『淸臺集』(1797)은 348판 판각에 약 72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각수 1인당 최소 1판(22명), 최대 11판(2명)을 판각하였다. 72명의 각수 중 58명이 5판 이하를 판각하였다. 각수

인원을 늘려 판각 기간을 짧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타 『晦堂集』(1932)의 인출본은 43권 21책 분량이다. 남아있는 770권의 책판에는 각수 표기가 없으나 간행 과정을 정리한 문헌에 참여한 각수와 판각의 분배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책에 의거한 판각에 참여한 각수는 33명이며, 각수 1인당 최소 2판(2명), 최대 72판(1명)을 판각하였다.<sup>10)</sup> 72판 판각은 조사된 책판 가운데 한 명의 각수가 가장 많이 판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표 4> 11권 이상 분량 책판의 각수별 판각량

(가나다순)

책판명	각수별 판각량(각수명)
立齋集 (1835)	1판 1명(崔益相), 2판 2명(崔應暉, 李弼相), 3판 2명(權得雲, 鄭德仁), 4판 2명(裴喆臣, 沈得卜), 5판 4명(朴萬業, 權夏日, 田宅信, 孫俊得), 5.5판 2명(姜探璜, 劉大根), 6판 2명(金岳伊, 徐厚卜[徐厚福]), 7판 4명(金聖緯, 權桂玉[權啓沃], 金應天, 洪桂允), 7.5판 2명(陳得孫, 金學得), 8판 5명(鄭忠云, 崔益天[崔益千], 金得伊, 崔敬仁, 金千鍾), 8.5판 2명(朴雲官, 權之度), 9판 2명(成千大, 田宅信), 10판 2명(金卜伊, 田成大), 10.5판 2명(劉致羽, 金千孫), 11판 3명(金根玉, 崔日祿, 朴尙春), 11.5판 2명(金丁業, 黃尙象), 12판 4명(僧應册, 崔義暉, 李守正, 洪孝得), 13판 3명(黃完石, 黃順玉, 朴仁淑), 13.5판 1명(洪興洛), 14판 3명(孫石得, 權用七, 鄭萬卜), 14.5판 1명(裴益相), 15판 4명(金千壽, 朴大成, 僧壯云, 田萬世), 16판 4명(秦得用, 李億伊, 僧壯仁, 權時卜), 16.5판 1명(金兩相), 18판 1명(金啓順), 18판 1명(金昌德), 18.5판 1명(朴光玉), 20판 1명(金得守[金得壽]), 21판 1명(僧 登輝), 24판 1명(李平孫)
密菴集 (19초)	0.5판 2명(石楚, 得玉), 1판 10명(初劫, 成麟, 慧允, 權之度, 學卜, 等后, 守暉, 之玉, 京得, 權黃介), 1.5판 1명(孟有), 2판 6명(初逢, 德仁, 東楨, 梁禹柱, 修業, 性仁), 3판 9명(鼎鎰, 得用, 守性, 萬業, 太仁, 義暉, 法弘, 尙勸, 敬仁), 4판 12명(戒律, 得云, 季孫, 汝正, 春孫, 智寬, 守旭, 宗玉, 云卜, 八景, 許孫, 云官[雲官]), 5판 8명(喜順, 華春, 光玉, 將活[章活], 尙春, 千孫, 應伯, 根玉), 6판 10명(等輝[騰輝], 世允, 得英[得水], 云孫[雲孫], 成義城, 大成, 萬卜, 宗一, 哲身, 徐忠石), 7판 14명(性佑, 昌祿, 石得[錫得], 俊得, 云伯[云白], 學俊, 云得, 得仁, 昌孫, 億永, 得卜, 戒性, 後卜, 興榮), 7.5판 1명(宗得), 8판 9명(謹佑[近右, 近愚], 致星, 日才[一才], 千大, 啓順[戒順], 之度, 韓生員, 將輝, 孝源[孝元]), 9판 6명(順玉, 啓沃[啓玉], 永玉, 金興孫, 戒喜[戒希], 得守), 10.5판 1명(得孫), 11판 1명(鄭己元)
百弗菴集 (1835)	1판 1명(孫哲伊), 4판 3명(金致亨, 朴仁叔, 金正滿), 5판 4명(孫俊得[孫準得], 孫哲守[孫喆守], 崔敬仁, 裴碩根[裴石根]), 6판 2명(田成大, 鄭大興), 7판 6명(洪興樂[洪興洛], 金福伊, 李珠玉, 崔日錄, 成一千, 黃尙祿), 8판 4명(金榮淳[金永順], 金大吉, 韓國贊, 金碩九), 9판 1명(洪啓潤), 10판 1명(裴景度), 13판 1명(金正業)

10) 선행 연구(우진웅, “『회당집』의 간행과정과 간역의 특징,” 『국학연구』, 제27집(2015), 366쪽)에 의하면, 2판 2명(鄭壽彤, 劉响鎬), 5판 1명(朴民秀), 5.5판 1명(金秉容), 6판 1명(朴孝秀), 7판 1명(劉禮鍾), 10판 1명(劉載恩), 13판 1명(河在鳳), 15판 1명(鄭昌守), 16판 2명(孫尙達, 劉載奎), 17.5판 1명(林台圭), 20판 2명(田台俊, 崔龍洛), 24.5판 1명(田淳根), 26판 1명(劉時萬), 27.5판 1명(劉載琪), 28판 1명(李鍾根), 28.5판 1명(劉文鍾), 29판 1명(姜聖道), 29.5판 1명(河斗秉), 34판 1명(鄭來淳), 35판 1명(金小俊), 38판 1명(權重一), 38.5판 1명(劉永璣), 40.5판 2명(權泰和, 權道均), 49판 1명(申泰圭), 49.5판 1명(劉載陽), 51판 1명(劉宣鎬), 54.5판 1명(權南洙), 68판 1명(申聖均), 72판 1명(趙璿圭)이 판각함.

책판명	각수별 판각량(각수명)
定齋集 (1883)	1권 2명(具道益, 金有敬), 3권 1명(金石巖), 3.5권 2명(金國弼, 金性一), 4권 2명(魯泰禮, 金雲伊), 4.5권 1명(李壽獻), 6권 4명(張德遠, 權道根, 金宋玉, 秦性守), 7권 2명(鄭在厚, 劉四平), 9권 3명(朴君賢, 金順燦, 劉祥敬[劉相敬]), 10권 1명(金聲五), 11권 3명(金聲瑞, 金和瑞, 張聲重), 11.5권 1명(成鶴天), 14.5권 1명(崔次芑), 15권 1명(金祿元), 16권 3명(盧炳龍, 高斗星, 裊相振), 17권 4명(劉雲得, 李知先, 劉夏源[劉夏元], 劉道烈), 17.5권 1명(劉大根), 18권 1명(權允池[權允之]), 19권 1명(黃善餘), 19.5권 1명(姜自出), 20.5권 1명(崔龍得), 21권 1명(劉致烈), 23권 2명(朴箕煥, 劉又先), 26권 1명(朴忠煥), 27권 1명(鄭大興), 28권 2명(田有敬, 裊顯銑), 38.5권 1명(田基元), 50권 1명(朴昌煥)
懲愆錄 (19초)	1권 7명(金學得, 金昌祿, 金應洙, 僧 志□, 金平孫, 金相範, 劉致羽), 2권 2명(僧 體典, 金得伊), 3권 3명(體典, 僧永成, 金有明), 4권 2명(田聖大, 田宅信), 5권 6명(劉應孫, 權夏日, 成日千, 劉致烈, 田萬世, 秦得用), 6권 3명(金國元, 池魚國, 金得壽[金得守]), 6.5권 1명(鄭萬福), 7권 5명(權以用, 朴尙春, 金八景, 鄭忠元, 秦學元), 8권 4명(張近德, 劉大根, 崔日祿, 金聲振[金盛振]), 9권 2명(李炯臣, 石眞玉), 12권 3명(沈得福, 李億只, 金正業)
淸臺集 (1797)	1권 22명(福萬, 黃命龍, 楊習, 軌軒, 聖允, 金胄國, 金取明, 成化, 取朋, 大華, 伊叔, 道仁, 就奉, 定仁, 命龍, 益鎮, 法貴, 保先, 安汝衡, 袖植, 雲才, 友習), 2권 12명(任秋, 胄國, 富貴, 定安, 取明, 性寬, 頓悟, 金興俊, 首頭, 寶世, 有植[有混], 儀定), 3권 10명(戒玉, 寶善, 朴聖宅, 德屹, 光俊, 福善, 時運, 宥永, 贊學, 取再), 4권 7명(興孫, 頓信, 汝衡, 戒至, 昌習, 賀永, 金達卜), 4.5권 2명(尙仁, 致儀), 5권 5명(知允, 先策, 友涉, 司空文就, 黃云才), 6권 2명(尹閑, 尙彥), 7권 7명(戒欣, 徐永俊, 太順, 石云, 鄭大成, 花世, 李首頭), 8권 2명(日祐, 永初), 10권 1명(寶察), 11권 2명(取仁, 取己)
鶴林集 (1811)	0.5권 3명(權夏日, 沈得福, 金卜只), 1권 9명(金錫龍, 近德, 金洋振, 金根玉, 金有界明, 李手孫, 成一千, 崔夏一, 成俊德), 2권 4명(劉致羽, 朴相春, 鄭萬福, 金岳允), 4권 2명(崔敬仁, 崔甲伊), 5권 3명(崔日祿, 劉應守[劉應洙], 秦學元), 5.5권 1명(李平孫), 6권 3명(孫俊德, 李必相, 金石龜), 6.5권 1명(金岳伊), 8권 4명(金國元, 權夏日, 孫石得, 崔舜鳳), 8.5권 1명(金元大), 9권 4명(田成大, 李億, 劉大根, 沈得福), 10권 2명(洪啓允, 金千孫), 10.5권 1명(田萬世), 12권 3명(秦得龍, 權晚福, 權龍), 13권 1명(金八景), 18권 1명(朴仁淑)
洪範衍義 (1668)	1권 4명(金增伊, 金晉伊, 朴相鳳, 朴用得), 2권 3명(崔敬仁, 金聲元, 吳世根), 3권 2명(鄭斗晉[鄭斗鎮], 姜自木), 4권 2명(吳漢文, 洪成業), 5권 3명(朴用石, 安文祚, 盧甲用), 5.5권 1명(金致亨), 6권 7명(金泉元), 朴有鳳, 田性大[田聲大], 金應先, 金昌根, 高斗星, 池魚國), 6.5권 1명(張啓春), 7권 7명(裴相辰[裴尙辰], 金聲發, 許以淵[河陽], 黃尙祿, 金希俊, 朴昌興, 金元汝), 8권 3명(鄭大興, 金命晉[金明振, 金明晉], 劉應順), 9권 4명(金國元, 張近德, 李琢汝, 徐基永), 10권 5명(劉雲得[劉云得], 裊石根, 金英建, 金有鳴, 金宗日), 10.5권 1명(裊致仁), 11권 4명(劉大根, 田益慶[田益景], 千尙萬, 崔龍得), 11.5권 2명(成鶴天, 田善俊), 12권 1명(鄭敬瑞), 13권 1명(權時福), 15권 2명(洪時宅, 金丁業), 16권 2명(李斗綱, 秦學源[秦學元]), 17권 2명(洪善宅[洪善澤], 黃完頤[黃完石]), 18권 1명(孫喆守[孫喆壽, 孫哲壽])

이상으로 한 종의 책판에 참여하는 각수의 인원과 각수별 판각 분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 종의 책판 판각에 참여하는 각수의 수는 판각 당시 각수 인력의 확보, 각수의 숙련도에 따른 인원수 배정, 문집의 분량, 비용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의해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분량의 문집이라도 어떤 것은 적은 인원의 각수가 참여하여 1인당 많은 분량을 판각하고, 그와 반대로 많은 인원의 각수가 참여하여 1인당 적은 분량을 판각한 것은 문집 간행의 시급함과 각수 인력을 어렵지 않게 확보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비교적 적은 분량의 인출본을 새긴 책판의 각수 인원을 살펴보면, 5권 이하의 인출본일 경우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32명이 참여하였다. 2권 1책의 『桃村實記』는 26판 판각에 약 9명이 참여하였다. 4권 2책 중 『勿巖集』은 67판 판각에 약 15명, 『龍巖集』은 68판 판각에 약 11명, 『鶴湖集』은 77판 판각에 21명, 『水北遺稿』는 82판 판각에 약 29명, 『湖陽集』은 55판 판각에 약 14명, 『陽坡集』은 78판 판각에 약 32명, 『二愚堂集』은 58판 판각에 12명, 『懶拙齋集』은 60판 판각에 약 11명, 『芝村集』은 90판 판각에 약 14명, 『白雲齋實記』는 77판 판각에 약 26명이 참여하였다. 특히 2권 1책의 『梅軒集』은 각수 1인당 한판씩만 일정하게 판각하였다. 이것은 본 연구에서 다른 책판 중 유일한 사례로 특이한 경우이다.

<표 5> 책판별 각수의 판각량 분포

책판명	권/책	각수 수	0.5-5.5판	6-10.5판	11-20.5판	21-30.5판	31-40.5판	41판 이상
桃村實記	2/1	[9]	6	2	1			
梅軒集	2/1	[29]	29					
勿巖集	2/1	[15]	3	11	1			
白雲齋實記	4/2	[26]	26					
懶拙齋集	4/2	[11]	8	1	2			
水北遺稿	4/2	[29]	29					
陽坡集	4/2	[32]	31	1				
龍巖集	4/2	[11]	5	5	1			
二愚堂集	4/2	[12]	9	3				
湖陽集	4/2	[14]	11	3				
鶴湖集	4/2	[21]	18	3				
芝村集	4/2	[14]	9		5			
石門集	4/2	[14]	4	9	1			
北亭集	5/2	[19]	12	7				
艮齋續集	5/2	[13]	4	6	3			
松月齋集	6/3	[17]	5	8	4			
涵溪集	6/3	[33]	30	3				
琴易堂集	7/4	[41]	37	4				
家禮輯要	7/3	[20]	15	5				
約齋集	8/4	[34]	18	15	1			
家禮或問	10/5	[20]	8	4	7	1		
鶴林集	11/6	[43]	22	16	5			
懲愆錄	16/6	[38]	20	15	3			
百弗菴集	18/7	[23]	8	14	1			
清臺集	18/9	[72]	58	14				
洪範衍義	28/13	[58]	15	28	15			
定齋集	36/19	[45]	8	10	18	7	1	1
晦堂集	43/21	33	4	3	7	7	6	6
密菴集	48/24	[90]	48	41	1			
立齋集	48/24	[66]	13	21	32			

### 3.2 판각상 특징

여기서는 책판에 표기된 권차 및 장차, 각수명 표기 등을 통하여 판각상에 나타난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과 예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책판을 조사하고 목록을 작성하다 보면 책판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 있다. 우선, 책판은 한 면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양면 모두에 새긴다. 책판의 양면은 같은 권차의 연속된 장차, 즉 권1의 제1-2장, 권1의 제3-4장, 권1의 제5-6장과 같이 배열되어 있다. 이것은 판각과 인출뿐만 아니라 판각 후 책판의 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후면의 장차 연결은 대부분 제1-2장(11-12, 21-22…), 제3-4장(13-14, 23-24…) 등과 같이 홀수(앞) 짝수(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또한 각수 한명이 책판의 전후면을 함께 판각하였다. 이것이 책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모든 책판이 이와 같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형된 경우도 있다.

책판의 전후면 판각에 대해 살펴보자. 한 문집의 장차 구성에 있어 각 권의 마지막 장이 짝수(제1-2장, 제3-4장, 제5-6장…)로 끝나지 않고 홀수로 끝나게 되면 나머지 한 면은 空板으로 비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른 권의 마지막 장차가 홀수가 되는 것과 함께 판각하였다. 이것은 공판을 활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종류의 책판에서 나타난다.

공판의 전후면을 다른 장차로 채워 양쪽을 모두 활용한 경우와 달리 일부는 한판에 한 면만을 판각하기도 하였다. 주로 서발문의 마지막 장이나 각 권의 마지막 장을 한판의 한 면만 판각하고 뒷면은 활용하지 않고 공판으로 두었는데, 『立齋集』, 『鶴林集』에서 많이 나타났다. 『立齋集』은 권4의 제37장/권3의 제25장, 권9의 제49장/권7의 제21장과 같이 뒷면에 다른 권차를 판각해 공판을 활용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마지막 장차는 한 면만 판각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sup>11)</sup>

『鶴林集』은 목록의 제1장/공판, 목록의 제2장/공판, 목록의 제3장/공판, 목록의 제31장/공판, 목록의 제32장/공판, 목록의 제34장/공판, 권2의 제7장/공판, 권2의 제8장/공판, 권4의 제33장/공판, 권4의 제34장/공판, 권4의 제35장/공판, 권4의 제36장/공판과 같이 마지막 장이 아니더라도 권2, 권4에 집중적으로 공판으로 둔 것이 많으며 전체 책판 278판 중 58판이 한 면이 공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각수의 판각 시 특이한 것은 한판의 전후면을 2명의 각수가 판각한 경우이다. 『定齋集』에서 권2의 제30장과 뒷면에 새긴 권20의 제47장은 金國弼, 劉大根이 각각 판각하였고, 권6의 제39장의 뒷면에 새긴 권15의 제41장은 朴昌煥, 金石峯이 각각 판각하였으며, 권9의 제40장과 뒷면에 새긴 권36의

11) 목록상의 제33장/공판, 권11의 제27장, 권13의 제35장, 권14의 제25장, 권16의 제31장, 권19의 제13장, 권19의 제14장, 권19의 제37장, 권21의 제33장, 권22의 제31장, 권25의 제4장, 권25의 제29장, 권29의 제33장, 권29의 제34장, 권29의 제43장, 권30의 제37장, 권32의 제41장, 권34의 제25장, 권35의 제14장, 권36의 제31장, 권37의 제41장, 권39의 제35장, 권41의 제37장, 권42의 제35장, 권44의 제9장, 권44의 제10장, 권45의 제39장, 권45의 제40장, 권46의 제45장, 권47의 제31장

제34장은 劉雲得, 朴昌煥이 판각하였다. 『定齋集』 외에도 『家禮輯要』, 『家禮或問』, 『琴易堂集』, 『立齋集』, 『密菴集』, 『石門集』, 『芝村集』 등에서 두 명의 각수가 한판을 판각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6> 2명의 각수가 한판을 판각한 사례

책판명	판각 권차(장차)	각수명
家禮輯要	권6의 제27/28장	金文學, 朴致五
家禮或問	권6의 제39/40장	金宗玉, 黃完石
琴易堂集	권7의 제7/8장	金遠大, 秦學元
立齋集	권19의 제17/18장	崔益天, 金丁業
密菴集	권5의 제44장/권24의 제13장	石楚, 得玉
石門集	권2의 제21/22장	戒聖, 繼盛
	권3의 제1/2장	戒聖, 得龍
定齋集	권2의 제30장/권20의 제47장	金國弼, 劉大根
	권3의 제35/권7의 제39장	崔用得, 金石岩
	권6의 제39장/권15의 제41장	朴昌煥, 金石岩
	권9의 제40장/권36의 제34장	劉雲得, 朴昌煥
	권24의 제22/23장	崔次丕, 姜自出
	권27의 제39장/32의 제35장	田基元, 成鶴天
	권35의 제39/40장	劉雲得, 田基元
芝村集	권2의 제5/6장	田喆守, 金有明

또, 『晦堂集』 권30의 제17/18장은 權道均, 金秉容, 제23/24장은 劉載陽, 權泰和, 제27/28장은 劉載琪, 鄭來淳, 제29/30장은 林台奎, 權南洙, 제31/32장은 金小俊, 權重一, 제33/34장은 劉宣鎬, 劉永璣, 제35/36장은 河斗秉, 劉文鍾의 기록이 있어 한판에 2명의 각수가 판각한 특이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기타 한 책판의 전후면에 다른 문집이 판각되어 있는 것이 있다. 『二愚堂集』 서문의 제3장의 뒤에는 『震峯逸稿』 권2의 제10장이 판각되어 있다. 『二愚堂集』은 강원도사 등을 지낸 權奩(1580-1651)의 시문집으로 1816년경에 간행하였으며, 『震峯逸稿』는 권환의 형인 權宏(1575-1652)의 시문집으로 1852년경에 간행하였다. 두 인물은 형제 사이이며 한국국학진흥원으로 책판을 옮기기 전에도 한 문중에서 책판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것은 같은 집안이 주관하여 판각하고, 책판을 보관해오다가 다른 문집을 판각할 때 이전에 판각한 책판의 한 면을 활용한 것이다. 『梅軒集』의 목록 제7장과 『文峯集』 권5의 제43장도 같은 사례로 함께 판각되어 있다. 또, 각수가 판각시 실수를 하였거나 나무 상태가 불량할 때에는 다른 권차가 새겨진 책판의 뒷면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책판에 새겼다. 이럴 때 실수하거나 불량한 책판에는 ‘不用’이라 표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12) 우진웅(2015), 371.

## 4. 책판 표기를 근거로 한 각수의 판각 활동

### 4.1 지역 표기

책판에 각수명과 함께 지역이 표기되어 있는 책판은 8종이다. 지역은 각수명이 표기된 모든 곳에 표기된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분에만 있다. 이를 통하여 참여한 각수의 이름, 각수가 판각을 담당할 부분 외에 다른 책판에 표기된 각수명 조사를 통해 한 각수의 당대 판각 활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8종의 책판에 표기된 거주 지역과 각수명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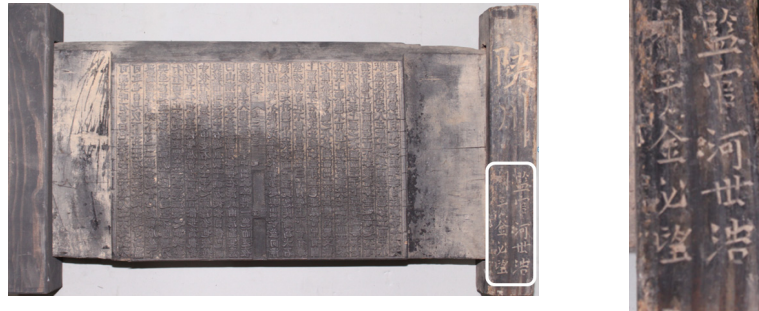
<표 7> 지역명이 표기된 각수

책판명	지역	각수명	책판명	지역	각수명
涵溪集	영천	戒春, 廣俊, 金光珠, 尹萬大, 定甘(定鑑)	農巖集	영산	柳己上
	대구	朴尙彦, 朴性澤, 寶慧, 如玉, 永初, 有榮, 尹孫, 振淑, 策演, 幻式		안동	明允, 李斗光, 采英, 金進化, 淡輝, 萬丁
	청송	方益, 幼完, 通暹, 廓存		합천	敏熙, 徐武眞, 弘贊, 弘海
	자인	璧旭(碧耶), 幼鑑, 最演, 太永, 恢紋		김천	元淨, 聖寬, 元淨, 裕應
	신녕	徐達秀, 徐永俊, 慎一, 李性化, 贊眞(贊澄)	예안	示永	
	경주	智永	순흥	敬眼	
	밀양	元允	안동	圓敏	
	안동	有淳(有順)	의성	定安, 智信	
嶠南賓興錄	대구	寶幸	易學圖說	울산	覺世
	군위	先册		청송	姓文
	자인	有霑, 印寬		양산	惠英
	의령	就己		영일	慈慧
			梧峯集	안동	進梅
			退溪集	영주	張一才, 鄭德仁, 取白
			洪範衍義	하양	許以淵

#### 4.1.1 農巖集(1710)

「農巖集」은 金昌協(1651-1708)의 문인 金時佐 등이 수습하고 편정하여 1709년 9월 아우 金昌翁에게 서문을 받아 1710년 34권 17책으로 간행하였다. 책판은 503판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확인되는 각수 이름으로 보아 최소 50여명 이상의 많은 각수가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각수 중에는 靈裕, 再京, 智白, 天機, 楚仁, 秋間, 致巖, 致坦 등 범명이 표기된 사찰 각수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農巖集」의 각수명 표기에서 특이할 점은 판각을 감독했던 監官과 각수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다. 감관 중 ‘河世浩’라는 인물은 책판의 기록으로 보아 권23의 감관을 맡았다.<sup>13)</sup>



<그림 3> 監官 河世浩가 표기된 책판(권23의 제5/6장)

陝川監官 河世浩의 관리 하에 판각했던 敏熙, 弘海는 합천 해인사에서 간행된 『雲水壇謠詞』(1719), 『諸般文』(1719), 『仔夔文節次條例』(1724)의 판각에도 참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sup>14)</sup> 안동 지역으로 표기된 각수 采英과 致英은 1701년 문경 鳳巖寺에서 간행한 『高峰和尚禪要』와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의 판각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金山(현재의 김천) 지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元淨은 해인사에서 간행한 『仔夔文節次條例』(1724)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農巖集』의 책판에 표기된 지역과 감관, 각수를 표기한 것은 다음과 같다.

<표 8> 『農巖集』 책판의 지역 표기 각수

지역	각수명
金山	聖寬, 元淨, 裕應
陝川	監官 河世浩 刻手 弘贊, 監官 河世浩 刻手 徐武眞, 監官 河世浩 刻手 敏熙, 弘海
安東	萬丁, 明允, 金進化, 淡輝, 李斗光, 池海云, 太根, 致英, 采英
靈山	柳己上
禮安	示永

#### 4.1.2 涵溪集(1773)

6권 3책 분량의 『涵溪集』은 조선 후기의 학자 鄭碩達(1660-1720)의 시문집으로 1773년에 편집, 간행하였다. 118권 완권이 남아 있으며, 각수명이 확인된 것은 모두 108권이다. 주목할 점은 108권

13) 권23 제1/2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徐武眞), 제5/6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金必望), 제7/8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敏熙), 제9/10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弘贊), 제11/12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弘贊), 제13/14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弘贊), 제19/20장(陝川監官 河世浩 刻手 弘海)

14) 김상호, “조선조 사찰판 각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129.

모두에 각수명과 지역이 목서로 표기되어 있어 전체 책판에 지역과 함께 각수명을 함께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표기된 각수명은 승려 고유의 법명이 많아 사찰 각수를 중심으로 하고 일부 민간 각수가 참여하였다. 『涵溪集』을 새긴 각수와 다른 책판에 표기된 각수명을 조사하여 다른 문헌의 판각에 참여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9> 「涵溪集」 판각 참여 각수와 다른 문헌 판각 활동

지역명(현)	각수명	다른 문헌 판각
경주	智永	安東權氏世譜(1794)
대구	策演	安東權氏世譜(1794)
대구	永初	安東權氏世譜(1794), 靑臺集(1797), 菊潭集(1800)
대구	朴尙彦	白雲齋實記(1786)
대구	寶慧	安東權氏世譜(1794), 久庵集(1791), 白雲齋實記(1786), 嶠南賓興錄(1792)
대구	振淑	豐山金氏世譜(1782), 五先生禮說分類(19초), 菊潭集(1800), 東巖集(1807)
대구	如玉	安東權氏世譜(1794)
대구	有榮	蘆厓集(1807), 東巖集(1807), 白雲齋實記(1786), 雙峯集(1809), 陽坡集(1807), 靑臺集(1797)
대구	尹孫	
대구	朴性澤	靑臺集(1797), 白雲齋實記(1786), 安東權氏世譜(1794)
밀양	元允	
신녕	李性化	白雲齋實記(1786)
신녕	愼一	
신녕	徐永俊	雙峯集(1809), 靑臺集(1797), 暘溪集(1790)
신녕	徐達秀	白雲齋實記(1786)
신녕	贊澄	白雲齋實記(1786), 雙峯集(1809), 暘溪集(1790)
안동	有淳 (有順)	槐潭遺稿(1811), 蘆厓集(1807), 東巖集(1807), 訥隱集(1808), 百拙庵集(1789), 安東權氏世譜(1794), 陽坡集(1807), 慵窩集(19초), 拙齋集(1791), 下枝集(1793), 恒齋集(1808)
영천	廣俊	靑臺集(1797)
영천	定甘	白雲齋實記(1786), 安東權氏世譜(1794)
영천	戒春	
영천	尹萬大	
영천	金光珠	白雲齋實記(1786)
자인	璧旭	白雲齋實記(1786)
자인	最演	白雲齋實記(1786), 豐山金氏世譜(1782)
자인	幼鑑	白雲齋實記(1786)
자인	恢紋	
자인	太永	
청송	廓存	
청송	幼完	
청송	方益	屏谷集(1797)
청송	通暹	

각수 중 寶慧는 『涵溪集』 권3의 제3/4장, 권4의 제15/16장, 권5의 제3/4장, 권5의 제45/46장 등에 '寶慧'의 각수명과 '大邱'가 기록되어 있어 대구 거주의 사찰 각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혜는 『涵溪集』(1773) 외에 『白雲齋實記』(1786), 『久庵集』(1791), 『嶠南賓興錄』(1792), 『安東權氏世譜』(1794) 등의 관각에 참여하였다. 『嶠南賓興錄』 권1의 제5-6장에도 '大丘 甫惠'와 같이 각수명과 함께 지역이 표기되어 있다. '甫惠', '普惠', '寶慧', '寶惠', '普慧' 등 각수명의 한자 표기에 있어 음은 같으나 한자를 달리 표기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유순은 '有淳', '有順'으로 표기하였으며, 『涵溪集』 권1 목록의 제1/2장, 권4의 제31/32장, 권5의 제13/14장에 '有淳', 서문의 제1/2장, 권1의 제1/2장, 권2의 제27/28장, 권3의 제35/36장에 각수명 '有順'과 함께 '安東'이라는 지역명이 표기되어 있어 안동 거주의 사찰 각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百拙庵集』(1789), 『拙齋集』(1791), 『下枝集』(1793), 『安東權氏世譜』(1794), 『東巖集』(1807), 『陽坡集』(1807), 『訥隱集』(1808), 『恒齋集』(1808), 『槐潭遺稿』(1811), 『蘆厓集』(19초), 『慵窩集』(19초) 등의 관각에 참여하였다.

#### 4.1.3 嶠南賓興錄(1792)

2권 1책 분량의 『嶠南賓興錄』은 1792년 正祖의 명으로 도산서원에서 열린 과거 급제자의 방목과 과문을 모아 엮은 책이다. 1796년 도산서원에서 간행한 이후 책판은 도산서원 장관각에 보관되어 왔다. 24판 완판이 남아 있으며 그 중 6판에 甫惠(大丘)<sup>15)</sup>, 先冊(軍威)<sup>16)</sup>, 有霑(茲仁), 印寬(茲仁)<sup>17)</sup>, 就已(宜寧) 등 각수명과 함께 지역이 표기되어 있다.

先冊은 『嶠南賓興錄』 권2의 제7장에 각수명과 함께 지역 '군위' 표기('軍威 先冊')가 있으며, 『久庵集』 목록의 제1-2장, 권4의 제13-14에 '僧'이라 표기되어 있어 군위 거주의 사찰 각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有霑은 『嶠南賓興錄』에 각수명과 지역 '茲仁'이 표기되어 있다. 印寬은 『嶠南賓興錄』에 각수명과 함께 지역 '茲仁'이 표기되어 있으며 『白雲齋實記』(1786)의 관각에도 참여하였다. 就已는 『嶠南賓興錄』에 각수명과 함께 지역 '宜寧'이 표기되어 있다.

#### 4.1.4 安東權氏世譜(1794)

『安東權氏世譜』는 權幸을 시조로 하는 안동권씨의 족보 중 1794년 甲寅譜를 새긴 책판이다. 33권 분량의 본문을 새긴 812판이 남아 있으며 그 중 751판에 각수명이 있다. 방대한 분량만큼 70명 이상의 각수가 대규모로 동원되었다. 발문의 뒤에는 '甲寅夏 安東府重刊'의 간기가 새겨져

15) 涵溪集(1773), 白雲齋實記(1786), 久庵集(1791), 安東權氏世譜(1794) 등 관각.

16) 龍巖集(1778), 健齋逸稿(1780), 久庵集(1791), 安東權氏世譜(1794), 淸臺集(1797) 등 관각.

17) 白雲齋實記(1786) 관각.

있어 1794년에 안동부에서 판각하였음이 확인된다. 각수 중 지역이 함께 표기된 각수는 敬眼, 定安, 知信이다. 敬眼은 지역이 '順興', 定安과 知信은 '義城'이 표기되어 있다. 知信과 定安은 많은 책판에 의성과 각수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다.

#### 4.1.5 『退溪集』(1817)

『退溪集』은 퇴계 이황의 시문집으로 1817년에 세번째로 간행한 문집 책판이다. 여기에는 각수 張一才(권47의 제43/44장), 鄭德仁(권3의 제57/58장)의 각수명과 함께 榮川(영주)의 지역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退溪集』 외에 19세기에 간행된 여러 문집의 판각에 활발하게 참여하였다. 장일재는 『退溪集』(1817) 외에 『芝軒集』(1821), 『晚谷集』(1821), 『后山集』(1823), 『樊巖集』(1824), 『敬亭集』(19초), 『常變通攷』(1830), 『鶴阜集』(1830), 『炊沙集』(1831), 『桃村實記』(1831), 『寓軒集』(1833), 『玉峯集』(1847)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張一才', '張一在', '張日才', '張日材', '張日載', '張逸才', '張鎰在' 등 여러 한자로 표기하였다. 정덕인은 『近思錄』(1794), 『荷塘集』(1810), 『禮安金氏世譜』(1813), 『南屏集』(1813), 『鶴湖集』(1813), 『逋軒集』(1822), 『后山集』(1823), 『艮齋續集』(1829), 『常變通攷』(1830), 『炊沙集』(1831), 『寓軒集』(1833), 『巴山逸稿』(1834), 『西厓集』(1834), 『立齋集』(1835), 『鶴阜集』(1830-40), 『松月齋集』(19초)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대부분 '鄭德仁'으로 표기했으며, '鄭德隣', '鄭德隣'으로도 표기하였다.

기타 『易學圖說』은 조선 중기 학자인 張顯光(1554-1637)이 역학에 관한 견해를 도설한 9권 9책 분량으로 1645년에 간행하였다. 울산 覺世, 청송 姓文, 양산 惠英, 영일 慈慧, 울산 哲牛 등 지역과 사찰 각수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惠英'은 1637년 통도사에서 간행된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의 판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양산 통도사 소속의 사찰 각수인 것으로 확인된다.<sup>18)</sup>

『梧峯集』은 申之悌(1562-1624)의 문집으로, 1740년에 藏待書院에서 간행되었으며, 권5의 제 11/12장에 각수명과 지역 '安東 進梅'가 표기되어 있다.

## 4.2 사찰 각수 표기

사찰 각수는 사찰에 소속된 승려 신분의 각수로 刻僧이라고도 한다. 불교가 국시였던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대대적 사업이었던 대장경의 제작뿐만 아니라 중앙 및 사찰 간행의 많은 불교문헌이 간행되었다. 또, 신라로부터 내려오던 축적된 목판 인쇄술의 발달과 어우러지면서 큰 사찰에는 많은 사찰 각수가 소속되어 있었다. 실력이 뛰어난 사찰 각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차출되어 주요 문헌의 간행 사업에 참여하였다.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송유역불 정책의 일환으로 불교가 억압받는

1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청구기호: 古1775-22) 권말 간행참여자 명단 참고.

면이 있었으나 조선전기 왕실발원본을 비롯한 불교문헌이 다수 간행되었으며 중후기로 넘어가면서 전국의 대사찰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불교문헌이 간행되었기에 각수가 많이 필요하였다.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서는 개인이나 문중, 서원 등이 주도하여 간행한 민간 문집이나 족보 등의 판각에도 사찰 각수는 깊숙이 관여하였다. 특히 이 시기는 문집이나 족보의 간행이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각수의 수요가 많아져 사찰 각수의 민간 판각 활동이 증가하였다. 또한 규모가 큰 사찰에는 각수라는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목재 등 인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적 재료가 비치되어 있어 문헌의 간행에 가장 용이한 공간이었으므로 문집 등의 판각에 사찰 각수가 많이 참여하였던 것이었다. 刊役時日記 등에 수록된 사찰 각수의 문집 판각에 참여한 사례를 살펴보면, 『刊役記事』(百弗菴集)의 1814년 8월 <刊役所到記> 중 ‘刻手分定’ 항목에서 都刻手를 해인사 승려 頓慧로 정하였고, 해인사, 동화사 소속 사찰 각수가 판각에 참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sup>19)</sup> 1817년 『退溪集』의 간역일기인 『先生文集改刊日記』의 기사에도 “각수인 승려 普敏이 왔다”(3월 8일), “龍潭寺 각수 2명이 왔다”(3월 17일), “廣興寺 각수 승려 1명이 왔다”(5월 3일) 등의 기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20)</sup> 이렇듯 사찰 각수의 참여는 간역일기 등의 문헌상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이는 전체 문집 간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책판의 표기를 통하여 사찰 각수의 참여 활동을 보다 더 많이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에 각수명과 함께 신분이 승려임을 나타내는 ‘刻僧’, ‘僧’ 등이 표기되어 있는 책판은 39종이다. 표기되지 않은 책판 중에서도 승려 고유의 범명이 많아 사찰 각수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나 여기서는 책판에 ‘僧’이라고 표기된 것만을 채택하여(<표 10>) 사찰 각수 중 비교적 활동이 왕성했던 각수의 활동 시기와 지역적 판각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았다.<sup>21)</sup>

<표 10> 사찰 각수가 참여한 책판

(가나다순)

책판명	저자	각수명
良齋續集(1829)	李德弘(1541-1596)	①僧 登輝 ②僧 世允
剛窩集(1834)	任必大(1709-1773)	①僧 戒善 ②僧 戒性 ③僧 戒沾 ④僧 戒希 ⑤僧 得孫 ⑥僧 得永 ⑦僧 智元
敬亭續集(19초)	李民歲(1570-1629)	①僧 海佑 ②僧 僖順
敬亭集(19초)	李民歲(1570-1629)	①僧 海祐 ②僧 華永
谷雲集(1711)	金壽增(1624-1701)	①僧 世謙 ②僧 一先 ③僧 琢曠 ④僧 敬雲
久庵集(1791)	金就文(1509-1570)	①僧 開一 ②僧 先册 ③僧 世彦
龜厓集(19초)	李琬(1650-1732)	①僧 登輝 ②僧 應册
農巖集(1710)	金昌協(1651-1708)	①僧 靈裕 ②僧 智白 ③僧 天機 ④僧 楚億 ⑤僧 秋間 ⑥僧 致嚴 ⑦僧 致坦
桃村實記(1831)	李秀亨(1435-1528)	①僧 慧允

19)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판각의 기록 - 간역시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52.

20)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판각의 기록 - 간역시일기』, 67-79.

21) 지역은 책판을 보관했던 장소, 종택이나 문중의 소재지, 문헌이나 책판에서의 간행 관련 기록 등에 의거하였다.

책판명	저자	각수명
懶拙齋集(1833)	李山斗(1680-1722)	①僧 等輝
梅軒集(1823)	洪浚亨(1600-1666)	①明淑 ②世允 ③壯輝
文峰鄭集(1799)	鄭惟一(1533-1576)	①得英 ②世允 ③壯輝
寶白堂實記(1829)	金係行(1431-1521)	①登輝
三塘集(1839)	金瑛(1475-1528)	①戒先
常變通攷(1830)	柳長源(1724-1796)	①戒先 ②戒性 ③官玉 ④大登(大澄) ⑤登輝(等輝) ⑥成允 ⑦壯仁 ⑧海佑 ⑨喜順 ⑩竺敏
西厓集(1834)	柳成龍(1542-1607)	①登輝
善迂堂集(19초)	李蔣(1569-1636)	①登輝 ②世允
松月齋集(19초)	李時善(1625-1715)	①等輝(鄧輝) ②應册
水北遺稿(1805)	金光炫(1584-1647)	①敬洪 ②戒叔 ③僅朋 ④記寬 ⑤大海 ⑥頓信 ⑦思仁 ⑧英俊 ⑨有澄 ⑩儀朋(義鵬) ⑪任性 ⑫處益 ⑬秋安 ⑭致俊 ⑮快默 ⑯泰順 ⑰幸察
安東權氏世譜(1794)		①圓敏 都刻手 廣興寺僧
約齋集(1811)	權柄(1723-1772)	①啓性 ②登輝 ③明叔(明淑) ④世允 ⑤將輝
藥圃續集(1818)	鄭琢(1526-1605)	①戒善 ②戒性 ③明淑 ④性允(成尹) ⑤幸俊
賜溪集(1790)	鄭好仁(1590-1655)	①勝日
養拙齋實紀(1849)	鄭鍾(1573-1612)	①勝玉 ②喜額
易學圖說(1645)		①僧 惠英[梁山]
梧峯集(1789)	申之梯(1562-1624)	①謹佑 ②等輝 ③壯輝 ④正順 ⑤喜順
寓軒集(1833)	柳世鳴(1639-1690)	①啓盛(戒聖) ②啓希(戒希)
二愚堂集(1816)	權奭(1580-1652)	①登輝
立齋集(1835)	鄭宗魯(1738-1816)	①登輝 ②應册(應策) ③壯云 ④壯仁
震峰逸稿(1832)	權宏(1575-1652)	①登輝[等輝] ②應策
蒼筠遺稿(1850)	金箕報(1531-1588)	①戒先
清風子齋集(1825)	鄭允穆(1571-1620)	①戒先
炊沙集(1831)	李汝鱣(1556-1631)	①慧允
退溪集(1817)	李滉(1501-1570)	①道云 ②信郁 ③儀正(義政) ④志允(芝允) ⑤進善 ⑥進允 ⑦喜學 ⑧明淑 ⑨聖潤 ⑩佳慶
鶴阜集(1830-40)	金履萬(1683-1758)	①啓律(戒律) ②五英 ③壯仁
鶴湖集(1813)	金奉祖(1572-1630)	①啓性 ②聖允 ③元敏 ④智圓 ⑤幸俊 ⑥楚玉
寒岡集(1841)	鄭述(1543-1620)	①寬岑 ②大吉 ③道芸 ④信郁 ⑤義政 ⑥基定
晦堂集(19초)	申元錄(1516-1576)	①世允
后山集(1823)	李宗洙(1722-1797)	①戒善 ②啓俊 ③藤輝 ④法活

#### 4.2.1 ㄱ-ㄷ

##### 4.2.1.1 계성(啓性, 啓盛, 季性, 季成, 戒性, 戒成, 戒盛, 戒聖, 繼性)

『約齋集』(1811, 안동), 『鶴湖集』(1813, 안동), 『藥圃續集』(1818, 예천), 『常變通攷』(1830, 안동), 『寓軒集』(1833, 안동), 『剛窩集』(1834, 의성)의 책판에 각수 표기가 있으며, 『謙菴集』(1803, 안동),

『開谷遺集』(1811, 안동), 『景玉遺集』(1813, 안동), 『石門集』(1821, 영양), 『愚伏別集』(1822, 상주), 『樊巖集』(1824, 안동), 『藤巖逸稿』(1828, 안동), 『密菴集』(19초,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湖陽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초 안동, 예천, 상주 등에서 활동함.

#### 4.2.1.2 계희(戒希, 啓希, 啓熙, 季希, 戒喜, 戒熙, 戒稀)

『近思錄』(1794, 봉화), 『禮安金氏世譜』(1813, 안동), 『寓軒集』(1833, 안동), 『剛窩集』(1834, 의성)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開谷遺集』(1811, 안동), 『景玉遺集』(1813, 안동), 『鶴川遺集』(1813, 안동), 『樊巖集』(1824,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密菴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8세기말-19세기 전기에 안동, 봉화 등에서 활동함.

#### 4.2.1.3 근우(謹佑, 近佑, 近愚, 近雨)

『梧峯集』(1789, 의성)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敬亭續集』(19초, 의성), 『后山集』(1823, 안동), 『樊巖集』(1824,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密菴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초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함.

#### 4.2.1.4 대해(大海)

『水北遺稿』(1805,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百拙庵集』(1789, 안동), 『安東權氏世譜』(1794, 안동), 『陽坡集』(1807, 안동), 『東巖集』(1807, 안동), 『龍山世稿』(1792, 안동), 『慵窩集』(19초, 안동), 『蘆厓集』(19초, 안동), 『開巖集』(18말-19초, 봉화)의 판각에 참여, 18세기말-19세기 초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함.

#### 4.2.1.5 득손(得孫)

『剛窩集』(1834, 의성)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陽坡集』(1807, 안동), 『東巖集』(1807, 안동), 『訥隱集』(1808, 봉화), 『東籬集』(1811, 안동), 『景玉遺集』(1813, 안동), 『鶴川遺集』(1813, 안동), 『退溪集』(1817, 안동), 『晚谷集』(1821, 영양), 『梅窓集』(1821, 예천), 『后山集』(1823, 안동), 『樊巖集』(1824, 안동), 『蘆厓集』(19초, 안동), 『俛庵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전기 안동을 중심으로 봉화, 영양, 예천 등에서 활동함.

#### 4.2.1.6 득영(得英)

『文峰鄭集』(1799, 봉화), 『剛窩集』(1834, 의성)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龍巖集』(1778, 구미), 『梧峯集』(1789, 의성), 『晚谷集』(1821, 영양), 『樊巖集』(1824,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密菴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8세기말-19세기 초 안동, 봉화, 영양, 의성, 구미에서 활동함.

#### 4.2.1.7 등휘(登輝, 等輝, 鄧輝, 藤輝)

『梧峯集』(1789, 의성), 『約齋集』(1811, 안동), 『二愚堂集』(1816, 안동), 『后山集』(1823, 안동), 『艮齋續集』(1829, 안동), 『寶白堂實記』(1829, 안동), 『常變通攷』(1830, 안동), 『震峰逸稿』(1832, 안동), 『懶拙齋集』(1833, 안동), 『巴山逸稿』(1834, 안동), 『西厓集』(1834, 안동), 『立齋集』(1835, 상주), 『龜厓集』(19초, 구미), 『善迂堂集』(19초, 안동), 『松月齋集』(19초, 봉화)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樊巖集』(1824,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密菴集』(19초, 안동), 『臨汝齋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을 중심으로 의성, 상주, 구미 등에서 활동함.

### 4.2.2 ㄱ-ㅇ

#### 4.2.2.1 명숙(明叔)

『約齋集』(1811, 안동), 『退溪集』(1817, 안동), 『藥圃續集』(1818, 예천), 『梅軒集』(1823, 봉화)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謙菴集』(1803, 안동), 『東籬集』(1811, 안동), 『南屏集』(1813, 안동), 『禮儀補遺』(1813, 안동), 『樊巖集』(1824,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 봉화, 예천에서 활동함.

#### 4.2.2.2 법활(法活)

『后山集』(1823,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菊潭集』(1800, 청도), 『東巖集』(1807, 안동), 『晚谷集』(1821, 영양), 『俛庵集』(19초, 안동), 『聖諭錄』(19초, 영덕)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 영양 등에서 활동함.

#### 4.2.2.3 선책(先冊, 先策)

『久庵集』(1791, 구미)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龍巖集』(1778, 구미), 『健齋逸稿』(1780), 『嶠南賓興錄』(1792), 『安東權氏世譜』(1794, 안동), 『淸臺集』(1797, 안동)의 판각에 참여, 18세기

말 안동, 구미에서 활동함.

4.2.2.4 성윤(性倫, 性允, 性潤, 成允, 成尹, 聖允, 聖潤)

『鶴湖集』(1813, 안동), 『退溪集』(1817, 안동), 『藥圃續集』(1818, 예천), 『常變通攷』(1830,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謙菴集』(1803, 안동), 『松巖續集』(1809, 안동), 『東籬集』(1811, 안동), 『南屏集』(1813), 『晚谷集』(1821, 영양), 『石門集』(1821, 영양)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 예천, 영양 등에서 활동함.

4.2.2.5 세운(世允)

『文峰鄭集』(1799, 봉화), 『約齋集』(1811, 안동), 『梅軒集』(1823, 봉화), 『艮齋續集』(1829, 안동), 『善迂堂逸稿』(19초), 『悔堂集』(19초)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藤巖逸稿』(1828, 안동), 『常變通攷』(1830,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密菴集』(19초, 안동), 『湖陽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 봉화, 의성에서 활동함.

4.2.2.6 원민(圓敏, 元敏)

『安東權氏世譜』 책판의 권말 간행참여자 명단에 ‘都刻手 廣興寺僧 圓敏’이 판면에 새겨져 있으며, 이어 간기 부분 ‘甲寅夏安東府重刊’이 새겨져 있어 1794년에 판각된 것이 확인된다.



都刻手  
廣興寺僧  
圓敏

<그림 4> 『安東權氏世譜』에 판각된 都刻手 ‘圓敏’ 기록

『近始齋集』(1783, 안동), 『雲巖逸稿』(1783, 안동), 『拙齋集』(1791, 안동), 『下枝集』(1793, 안동), 『謙菴集』(1803, 안동), 『七峰集』(1804, 봉화), 『訥隱集』(1808, 봉화), 『恒齋集』(1808, 영양), 『松巖續集』(1809, 안동), 『荷塘集』(1810, 안동), 『南屏集』(1813, 안동), 『鶴湖集』(1813, 안동), 『禮儀補遺』

(1813, 안동), 『晚谷集』(1821, 영양), 『芝軒集』(1821, 안동), 『開巖集』(18말-19초, 봉화), 『蘆厓集』(19초, 안동) 등의 판각에 참여, 18세기 말-19세기 초에 안동, 봉화, 영양 등에서 활동함. 圓敏은 『安東權氏世譜』의 간행기록으로 안동 광흥사 소속의 사찰 각수로 『安東權氏世譜』의 판각 작업을 총지휘한 책임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또 『鶴湖集』(1813)의 책판 중 목록 제3-4장과 권2의 제17-18장에 ‘僧 元敏’으로 기록되어 있어 그가 광흥사의 사찰 각수인 것을 뒷받침 해준다.

#### 4.2.2.7 의정(儀定, 儀政, 儀正)

『退溪集』(1817, 안동), 『愚伏集』(1822, 상주), 『寒岡先生言行錄』(1841, 성주), 『寒岡集』(1841, 성주), 『五先生禮說分類』(19초)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淸臺集』(1797,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 상주, 성주 등에서 활동함.

### 4.2.3 ㅈ-ㅎ

#### 4.2.3.1 장휘(壯輝)

『梧峯集』(1789, 의성), 『文峰鄭集』(1799, 봉화), 『約齋集』(1811, 안동), 『梅軒集』(1823, 봉화)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敬亭續集』(19초, 의성), 『晚谷集』(1821, 영양), 『晚翠洞逸稿』(1823, 청송), 『后山集』(1823, 안동), 『樊巖集』(1824, 안동), 『俛庵集』(19초, 안동), 『密菴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을 중심으로 의성, 영양, 봉화에서 활동함.

#### 4.2.3.2 처익(處益)

『水北遺稿』(1805,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百拙庵集』(1789, 안동), 『龍山世稿』(1792, 안동), 『七峰先生逸集』(1804, 봉화), 『東巖集』(1807, 안동), 『陽坡集』(1807, 안동), 『訥隱集』(1808, 봉화), 『恒齋集』(1808, 영양), 『松巖續集』(1809, 안동), 『槐潭遺稿』(1811, 봉화), 『厚菴集』(1812, 청송), 『南屏集』(1813, 안동), 『禮儀補遺』(1813, 안동), 『退溪集』(1817, 안동), 『愚伏集』(1822, 상주), 『開巖集』(18말-19초, 봉화), 『蘆厓集』(19초, 안동), 『慵窩集』(19초, 안동) 등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을 중심으로 상주, 영양, 봉화, 청송에서 활동함.

#### 4.2.3.3 치준(致俊)

『水北遺稿』(1805,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百拙庵集』(1789, 안동), 『龍山世稿』

(1792, 안동), 『訥隱集』(1808, 봉화), 『恒齋集』(1808, 영양), 『松巖續集』(1809, 안동), 『槐潭遺稿』(1811), 『蘆厓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 영양, 봉화에서 활동함.

#### 4.2.3.4 쾌묵(快默)

『水北遺稿』(1805,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龍山世稿』(1792, 안동), 『東巖集』(1807, 안동), 『陽坡集』(1807, 안동), 『開巖集』(18말-19초), 『蘆厓集』(19초, 안동), 『慵窩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함.

#### 4.2.3.5 태순(太順, 泰順, 太淳)

『水北遺稿』(1805, 안동)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安東權氏世譜』(1794, 안동), 『淸臺集』(1797, 안동), 『東巖集』(1807, 안동), 『陽坡集』(1807, 안동), 『慵窩集』(19초, 안동)의 판각에 참여, 18세기말-19세기 초 안동을 중심으로 활동함.

#### 4.2.3.6 행준(幸俊)

『鶴湖集』(1813, 안동), 『藥圃續集』(1818, 예천)의 책판에 각승 표기가 있으며, 『謙菴集』(1803, 안동), 『開谷遺集』(1811, 안동), 『厚菴集』(1812, 청송), 『南屏集』(1813), 『禮儀補遺』(1813, 안동), 『退溪集』(1817, 안동), 『后山集』(1823, 안동)의 판각에 참여, 19세기 초 주로 안동에서 활동함.

## 5. 결 언

이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책판을 통하여 조선시대 문집이나 족보 등을 판각한 각수의 정보와 판각 활동, 책판 실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판각 과정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비슷한 분량의 문집이라도 참여한 각수의 수는 문집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한 문집 내에서도 각수 1인당의 판각량은 비슷하거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을 새기는 각수와 많은 양을 새기는 각수의 편차가 있었다. 유일하게 『梅軒集』은 각수 한명이 한판씩만 판각한 특이한 경우이다. 많은 각수가 참여하여 판각 기간을 짧게 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密菴集』은 48권 24책 분량으로, 90명 이상의 각수가 참여하여 조사된 책판 가운데 참여 각수가 가장 많았으며, 『晦堂集』은 43권 21책 분량으로, 33명의 각수가 참여하여 한 명의 각수가 최대 72판까지 판각하였다. 조사된 책판 가운데

한 명이 가장 많이 판각한 경우에 해당된다.

판각상 특징으로, 책판의 앞뒤는 대부분 연속된 장차이지만 마지막 장이 홀수로 끝나게 되면 남은 한 면은 다른 권의 홀수인 마지막 장차와 함께 판각하였다. 이것은 공판을 활용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거의 모든 종류의 책판에서 나타났다. 한편의 전후면은 대부분 한명의 각수가 판각하지만 2명의 각수가 판각한 경우도 있었다. 한 문집의 책판의 뒤에 다른 문집이 판각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주체가 주관하여 판각, 책판을 보관해오다가 다른 문집을 판각할 때 이전의 책판을 활용한 것이다. 또, 각수의 실수가 있을 때는 다른 책판에 새겼으며, 실수한 책판에는 '不用'이라 표기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조선 후기로 오면서 문집이나 족보의 간행이 증가하여 사찰 각수의 민간 활동이 크게 증가하였다. 각수 중 '圓敏'이라는 각수는 안동 廣興寺 소속의 都刻手로 『安東權氏世譜』(1794)의 판각 작업을 총지휘한 책임자였다. 원민은 『安東權氏世譜』뿐만 아니라 『近始齋集』(1783, 안동), 『謙菴集』(1803, 안동), 『芝軒集』(1821, 안동) 등 20여 종 이상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그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봉화, 영양 등에서 활동한 당대 뛰어난 각수였다.

‘寶慧’는 일부 책판에 ‘大邱’가 기록되어 있어 대구 거주의 사찰 각수인 것으로 추정되며, 『涵溪集』(1773), 『白雲齋實記』(1786), 『久庵集』(1791), 『嶠南賓興錄』(1792), 『安東權氏世譜』(1794) 등의 판각에 참여하였다.

기타 『易學圖說』은 울산 覺世, 청송 姓文, 양산 惠英, 영일 慈慧, 울산 哲牛 등 사찰 각수의 지역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 ‘惠英’은 1637년 통도사에서 간행된 『天地冥陽水陸齋義纂要』의 판각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양산 통도사 소속의 사찰 각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책판에 대한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중 책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판각상의 특징과 책판에 표기된 각수를 중심으로 하여 개괄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심층적인 분석 연구와 여러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를 기대해본다.

## <참고문헌>

-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대구: 대구대학교출판부, 2013.
- 한국국학진흥원. 『국역 조선시대 서원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07.
- 한국국학진흥원. 『목판의 행간에서 조선의 지식문화를 읽다』. 서울: 글항아리, 2013.
- 한국국학진흥원. 『문집판각의 기록 - 간역시일기』.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 한국국학진흥원. 『유교책판』. 안동: 한국국학진흥원, 2015.
- 남권희 저·한국국학진흥원 목판연구소 기획.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 각수 인명록』. 안동: 한국

국학진흥원, 2015.

김상호. “조선조 사찰판 각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0.

김상호. “『國朝寶鑑』 1848년 판본의 각수 연구.” 『서지학연구』 제45집(2010. 6). 97-117.

박도화. “雲興寺 刻手 演熙의 板刻 양식.” 『강좌미술사』 제26집(2006. 6). 637-664.

손계영. “조선후기 책판의 간행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책판을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49집(2011. 9). 359-388.

우진웅. “『晦堂集』의 간행과정과 간역의 특징.” 『국학연구』 제27집(2015. 8). 341-381.